

커먼즈와 금융

금융커먼즈 집담회

공동체 은행 빈고. 디디

금융(fi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유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금융(fin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유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콜라, 포틀래치...)

금융(fin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유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콜라, 포틀래치...)

말리노프스키의 경제인류학 연구 "서태평양의 항해자" (1922년)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부족민 남성들은 그들의 발이 "멋지게" 보이도록 하는데에 무한한 에너지를 쏟아 부음

- 산출물의 절반은 그냥 버려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여자 형제 쪽 집으로 보내짐
- 발의 주인은 자기 부인의 형제들이 보내는 식량으로 생활



금융(fi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유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콜라, 포틀래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의 금융들은 존재함

금융(fin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유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콜라, 포틀래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의 금융들은 존재함

→ 금융: (이윤추구에서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원을 유통/재분배하는 활동=재생산

금융(fin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유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콜라, 포틀래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의 금융들은 존재함

→ 금융: (이윤추구에서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원을 유통/재분배하는 활동=재생산

커먼즈(common)란 무엇인가?

커먼즈를 보는 두가지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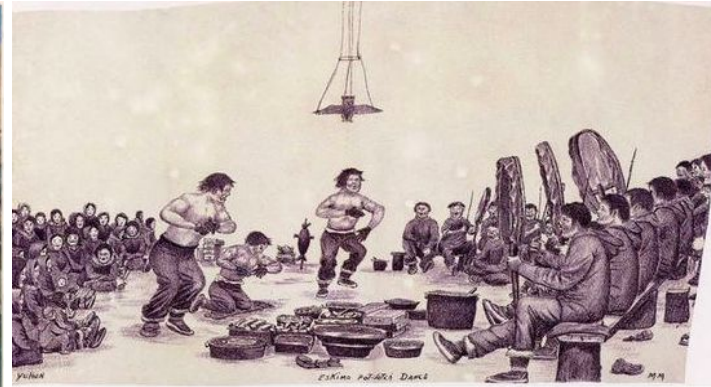
- (1)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의 **자원**: 자연자원,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금융 커먼즈 등

커먼즈를 보는 두가지 시각

- (1)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의 **자원**: 자연자원,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금융 커먼즈 등
- (2) 공동으로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그러한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는 감각, 문화, 관계 → '세계짓기'의 원리

커먼즈와 자본주의

- 인류학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삶의 방식 존재 →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언제나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커먼즈와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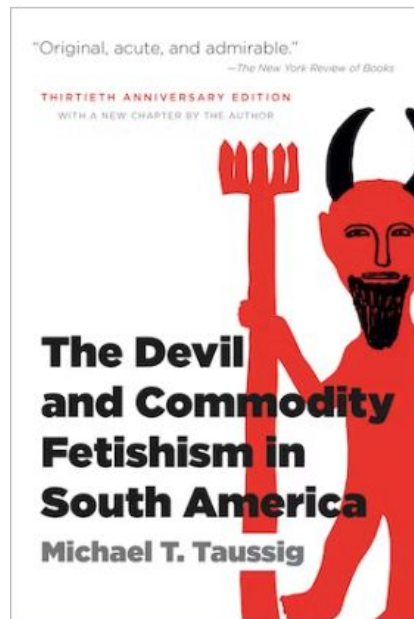
- 인류학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삶의 방식 존재 →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언제나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 한편, 자본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집합적 생산방식/관계로부터 분리하면서 시작됨

"England is not a free people, till the poor that have no land, have a free allowance to dig and labour the commons..."
Gerard Winstanley, 1649



커먼즈와 자본주의

- 인류학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삶의 방식 존재 →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언제나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 한편, 자본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집합적 생산방식/관계로부터 분리하면서 시작됨
 - 다양한 물질적, 사회적 커먼즈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야만 삶을 유지할수 있게 됨
 - “삶”과 분리된 것으로서의 “경제”라는 영역의 탄생
 - 이러한 경제가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이윤”
 - 경제적 이익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이, 자본주의적 경제의 주체로 탄생



커먼즈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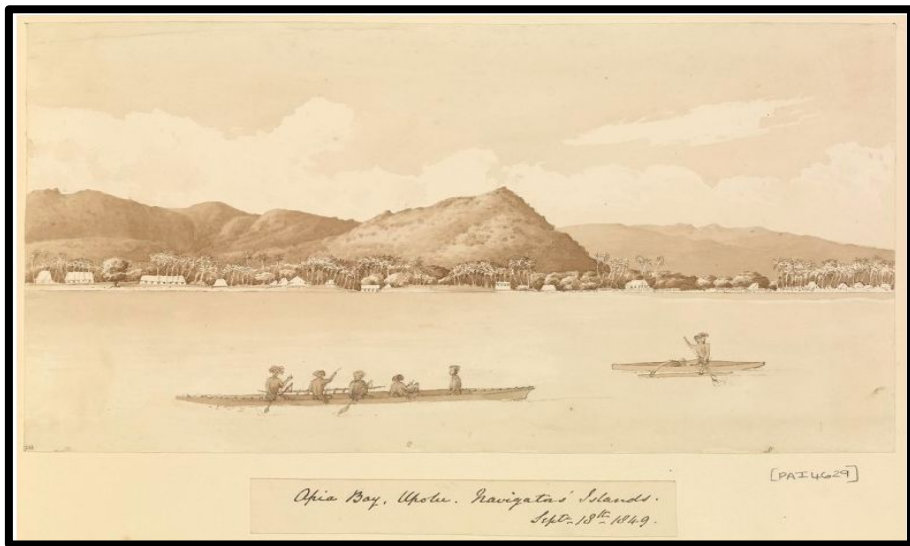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빠빠라기,

20세기 초 유럽을 방문한
사모아 군도 섬의 추장 투이아비의 연설문



오 형제들이여, 사모아에 있는 마을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룻밤 자고 갈 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팔에 바나나를 한아름 안고서 눈앞의 배고픈 자를 외면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는 그대들의 눈 속에서 노여움을 보고 그대들의 입술에서 경멸을 본다. 정말이다. 그런 일을 빠빠라기들은 날마다 한다. (투이아비)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우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우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 라우라는 말이 있다. **"내 것"**이라는 뜻이지만 **"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똑같은 의미이며 결국은 신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빠빠라기가 쓰는 언어 가운데 **"내 것"**과 **"네 것"**처럼 구분이 확실한 단어도 없다. **"내 것"**은 오직 자기 혼자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 (2) 물물교환하는 원시인, 그로부터 현재의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주류경제학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낫설게 보기: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우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 라우라는 말이 있다. **"내 것"**이라는 뜻이지만 **"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똑같은 의미이며 결국은 신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빠빠라기가 쓰는 언어 가운데 **"내 것"**과 **"네 것"**처럼 구분이 확실한 단어도 없다. **"내 것"**은 오직 자기 혼자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돈이라고 부르는 둥근 쇠붙이와 묵직한 종이가 빠빠라기들이 믿는 진정한 신이다. (...) 돈은 악령이다. 그것을 만지기만 한 사람도 마법에 사로잡히고 한평생 그것을 받들어모시고 정열과 기쁨을 바쳐야 한다.

-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 (2) 물물교환하는 원시인, 그로부터 현재의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주류경제학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
- (3) 자본주의적 화폐의 물신적 성격에 대한 통찰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낫설게 보기: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울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 라우라는 말이 있다. **"내 것"**이라는 뜻이지만 **"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똑같은 의미이며 결국은 신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빠빠라기가 쓰는 언어 가운데 **"내 것"**과 **"네 것"**처럼 구분이 확실한 단어도 없다. **"내 것"**은 오직 자기 혼자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돈이라고 부르는 등근 쇠붙이와 묵직한 종이가 빠빠라기들이 믿는 진정한 신이다. (...) 돈은 악령이다. 그것을 만지기만 한 사람도 마법에 사로잡히고 한평생 그것을 받들어모시고 정열과 기쁨을 바쳐야 한다.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이 생긴다!"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다. 그런데 빠빠라기들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모순이 있다. 돈이 많다고 모두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한다) (...) **나중에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돈은 저절로 불어난다.** 나는 마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 (2) 물물교환하는 원시인, 그로부터 현재의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주류경제학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
- (3) 자본주의적 화폐의 물신적 성격에 대한 통찰
- (4) 임노동과 자본가의 착취관계: 자본주의적 교환관계의 근본적인 투기적 성격 (이자를 낳는 돈)에 대한 직관

커먼즈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커먼즈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 자본주의와 커먼즈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주체성)'과 그들의 삶/관계를 (재)생산하는 '생산양식'

커먼즈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 자본주의와 커먼즈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주체성)'과 그들의 삶/관계를 (재)생산하는 '생산양식'
-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라는 체계(들): 내부의 로직과 합리성들
→ 노동과 금융은 '세계짓기'의 핵심 활동

커먼즈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 자본주의와 커먼즈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주체성)'과 그들의 삶/관계를 (재)생산하는 '생산양식'
-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라는 체계(들): 내부의 로직과 합리성들
→ 노동과 금융은 '세계짓기'의 핵심 활동
- **자본주의:** 임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상품교환을 통해 유통; 자원은 주로 '이윤'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위해 동원되고 움직임
- **커먼즈는?**